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29 색채와 국가

중국서 하얀색은 종말과 죽음 상징

●중국



명나라 도용(屠隆)의 『고반여사(考槃餘事)』에 의하면, 물 향아리에 하얀색 자갈을 넣으면 물 맛이 좋고 물이 맑아진다. 또한 『다기(茶器)』에 의하면, 물 향아리에 하얀색 자갈을 넣으면 물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얀색 자갈과 푸른색 물이 만나 유쾌한 반응을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원소를 5가지 색으로 분류하였는데, 하얀색은 쇠를 나타낸다. 하양은 여성의 색이다. 하얀색은 종말과 죽음을 상징하고, 전통적으로 상색(喪色)을 의미하며, 장의(葬儀) 이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에서 하얀색은 상중(喪中)이나 사별(死別)을 상징하고, 슬픔을 나타내는 색이므로 축하하는 장소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중국인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때 하얀색 봉투로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색채상징에서 하얀색은 여성적인 음(陰)에 속한다. 또한 하얀색은 여성의 상징인 달에 속하기 때문에 점성술사들은 달을 은색으로 대치하고 있다. 특히 양귀비는 선전적인 하얀 피부로 천성의 미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하얀 새인 두루미와 따오기가 불멸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새로 믿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는 1958년에 제정되었으며,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프랑스의 국기의 색인 파랑과 하양 그리고 빨강, 범아프리카 색인 초록과 노랑 그리고 빨강을 사용하였다.

●중화민국



중화민국의 국기는 빨강과 파랑 그리고 하양의 삼색으로 민족의 독립과 민권의 신장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의미한다.

중화민국의 국기는 청천백일만지홍기(青天白日滿地紅旗)라고도 부르며, 캔턴 부분(파란 사각형)은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라고 하나, 국기 자체를 약칭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1928년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처음으로 창안하였다.

●짐바브웨



짐바브웨의 국기는 1980년에 제정되었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초록, 노랑, 빨강, 검정, 하양 5가지 색이며,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애국 전선, ZANU-PF)의 깃발에서 유래된 것이다.

하얀색은 평화를 의미한다.

●칠레



칠레의 국기는 1817년에 채택되었으며,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하양과 하얀 별 그리고 파랑, 빨강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은 하얀 눈에 덮인 안데스 산맥을, 하얀 별은 명예와 진보의 길잡이 그리고 통일을 의미한다.

●캐나다



캐나다의 국기는 1964년에 국민 공모로 제정되었으며, 1965년 이전에는 왼쪽 위에 영국의 국기가 삽입되었고, 1965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캐나다의 국기를 단풍잎 모양 때문에 흔히 '메이플 리프 플래그(Maple Leaf Flag)'라고 불린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빨강과 하양 그리고 빨간 단풍잎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빨간 단풍잎은 캐나다의 자연환경, 빨간색은 영국의 유니언 잭을, 하얀색은 프랑스의 삼색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과거의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김덕형



기고 최현주 목포시의원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목포시를 바라며

“우리 센터 입구는 차도가 좁고 이동하는 차가 보이지 않아 위험해요!”

필자가 지난 5일 목포시의회에서 진행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정책제언 간담회에 참여하여 듣게 된 한 아이의 목소리이다. 굿네이버스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권리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동 참여 조직이다.

2023년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의 아동권리옹호전문가로서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5명의 모니터링단원은 올해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직접 이용하는 학교와 아동센터 주변에서 돌아보며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찾아보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였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불편함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정책제언 간담회를 통하여 ‘아동복지시설 주변 볼록 거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 확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라는 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제언 활동을 통하여 어른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해 기특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나누는 부모가 됩니다”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 본 아이들은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정책제언 간담회를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과 관련한 일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릴레이 경기기에 바톤은 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른들로 넘겨졌다.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꿈꾸는 내일을 위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아동권리옹호전문가로서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아이들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받는 목포시가 되길 바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 방향

전일광장

이기언

광주시교육연구원
교육학박사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23 광주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세계 유수대학의 교수진과 우리나라 각계의 교육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발제를 하였고,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미래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미국 에모리대학 최익선 교수는 교육학 100년 동안의 난제인 ‘지식과 행동 사이의 격차(Knowledge and Action Gaps)’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최 교수는 실제 수행했던 실험을 예로 들었는데, 대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 식사 전 손을 씻는 행동에 관한 실험이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지 설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85%였다. 하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지를 직접 관찰한 결과 실제로 손을 씻는 학생은 2.5%에 불과하여 대학생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

와 실제 행동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립된 인식 수준은 삶 속에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익선 교수는 삶과 삶의 일치를 위해 ‘실생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 조건’을 강조하였다. 먼저 학습자는 자신이 현재 가진 지식 수준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할과 사명, 삶의 목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삶 속에서 의미있는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의 학업성취도, 특정한 자격이나 기술 습득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최고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손찬희 본부장은 광주의 미래교육은 ‘자기이해지능’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자기이해지능은 자기성찰능력이다. 자기이해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과 자기향상,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도 높아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역할에 적합하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스테판스 대학 캐롤 드웍(Carol S. Dweck)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성장하고 가능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다. 인간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주도성을 갖기 위해 미래세대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이다. 학생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집중하는 활동을 했을 때 성장형 사고방식은 더욱 촉진된다.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교육의 본질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무수히 많은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다. “성장하는 힘을 기르는 것, 삶과 삶이 일치하는 것. 평생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2024년 광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움이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배운 것을 삶에서 행하고, 배움을 토대로 성장하고, 자신이 성장한 만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에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 미래를 함께 여는 광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

해님이 해맞이 안전이 우선이다

독자투고

아쉬운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신년 첫날인 1월1일 전국 해안가 및 선상(船上)에서 해맞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맞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일출의 장엄함 속에 새해를 설계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마다 연말연시에 즈음해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유명 해맞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해맞이·송년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해맞이 행사의

경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마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안전을 챙기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해맞이를 하겠다’는 욕심이 더해져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명 해맞이 장소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며,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급격한 혼잡이 심한 지역을 피하고 소매치기 등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저무는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님이 해맞이 행사장에서의 작은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자.

김덕형 <무안경찰서 뽕탄치안센터 경감>

그래프로 보는 세상

